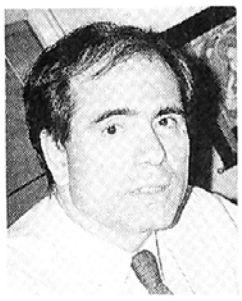
"한국불교 알아야 한국사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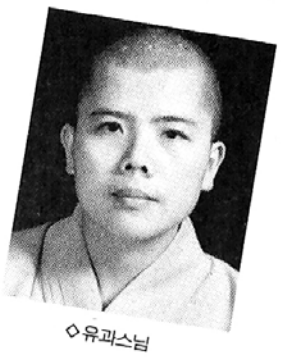
반고지 신라불교사 연구 푸지오니 '고려 법상종…' 박사학위 유과 한국 선사상 심취

한국사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있다. 다름아닌 '불교'다. 한국불교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는 한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한국불교에 매료돼 불교만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던 사람이 오히려 한국역사와 문화 등에 관심을 갖게되는 경우도 많다. 즉 '한국의 역사=불교, 불교=한국의 역사'라는 등식은 한국을 연구하는 외국인들에겐 진리 불변의 공식인 셈이다.

한국불교 연구하는 주한 외국인학자

◇반고지씨


◇푸지오니씨


◇유과스님

불교 발상지에서 한국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건너 온 반고지씨(Pankaj, 인도·정신문화연구원 초청연구원)는 '신라초기에 있어서 불교와 국가간의 관계'를 주제로 정해 놓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뒤지며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유·불·도가 함께 성행하긴 했지만 불교가 한국 고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더이상 설명할 필요없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를 거치면서 불교역사가 상당부분 왜곡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려 보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반고지씨의 본래 연구분야는 한국사. 그러나 반고지씨는 한국불교를 알아야만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자각에서 불교연구를 시작했다.

토니노 푸지오니씨(이탈리아·前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행정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고려시대 법상종 교단의 추이'라는 논문으로 서양인으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토니노씨의 본래 연구분야 역시 한국사였다.

"한 교단의 흥망성쇠를 당시 정치환경과 관련해 연구하다보니 한국불교의 발전상과 현대사에서 한국불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조선초 선교양종의 통합에 따라 화엄종이 교종에 흡수되는 과정은 한국불교의 '통합의 이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78년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행정관으로 부임하면서 서울대에서 한국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토니노씨의 귀착점은 결국 불교였다.

유과스님(대만·동국대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은 이들과는 달리 한국불교에 매료돼 9년째 동국대에서 본격적으로 한국불교를 연구해 온 한국파. 79년 출가해 87년 대만 강원을 졸업한 유과스님은 동국대 학부, 석사과정을 거쳐 현재 '한국불교사상'을 주제로 잡고 禪사상을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교리·좌선·실수 등의 조화방향도 모색하고 있다.

"한국불교는 한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바로 그 저력이 오늘의 우수한 불교문화와 전통을 낳게 한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대만에 돌아가 강단에 서서 한국불교를 가르치고 싶다는 유과스님의 또 다른 꿈은 불교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민속과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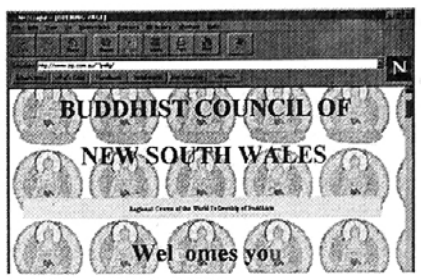
그러나 과거 불교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비친 오늘의 한국불교는 역사를 움직였던 동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명맥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침체된 모습이다. 이들이 낯선 이국땅에서 겪는 어려움은 언어소통도 식습관도 외로움도 아니다. 자신들이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한국불교가 과거의 역사만큼 훌륭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더욱 절실하다.

"한국불교가 앞으로도 한국사회의 이념을 선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불교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도 한국의 중심임을 일깨워 주었으면 합니다."

한국불교에 매료된 외국인 연구생들의 소망이다.

한명우 기자

부다피아 사이트여행



호주 불교평의회

사찰·고승·만평등 볼거리 풍성

국가적·국제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단체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얻는 혜택은 짐작하기도 어렵다.

호주의 웨일즈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교평의회'는 1972년 호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웨일즈 지역 백인 불자들이 티벳승을 지원해 설립한 단체로 현재 호주의 대표적인 불교 단체이다.

따라서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호주 불교계 소식 및 활동을 비롯해 △호주 사찰 정보 △대장경전산화 소식 △호주 고승 소개 △논문 △십우도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중에서 '불교평의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만평이 가장 이채로운 정보. 이 만평은 최근 '시드니 모닝 헤럴드'(호주)에 실린 것으로, 지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호주 정부가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불교의 교세가 현격히 증가한 것을 풍자한 만화. 물론 인구조사 결과는 도표를 통해 상세히 전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불상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홈페이지의 모습과 연속된 자막을 통해 '불교평의회' 최근 뉴스를 보여주는 등 호주불교의 다양한 정보가 이채롭게 제공되고 있어 한국의 네티즌이 한 번쯤 방문해 한국불교와 비교해 봄직한 사이트이다.

'불교평의회'는 'http://www.zip.com.au/lyallg/'로 방문하면 된다.

〈욱〉

문화재 단신

'한국문화재도록 미국②편' 美소재 1400여점 목록 실려

◇조선시대 금동삼존불상 본존불(높이 40.6㎝·클리브랜드 박물관 소장).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정원)은 해외소장 한국문화재 조사 및 도록 발간사업 5번째로 최근 '한국문화재도록 미국 ②편'을 펴냈다.

이번 도록에는 시애틀박물관 등 미국 5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불상·회화·도자기·민속공예품 1천4백여점의 목록과 3백여점의 도판이 해설과 함께 실려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1백점(일본 80점, 한국 10점) 정도가 남아있는 고려불화 가운데 클리브랜드박물관이 소장한 7점의 고려불화와 시카고미술관 소장 16세기 작품 '아미타여래도', 18세기 작품 '지장보살도'가 실려있어 관심을 끈다.

"환경운동, 자아개혁이 첫걸음"

英 구하파티·카펜터교수 제기

英·泰, 산림보호·반핵등 생태계 보존 앞장

최근 불교환경운동에서 '자아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서방불교도우의회'(FWBO)의 수석 연구원 구하파티(영국)와 옥스포드대 교수 존 카펜터(영국)에 의해 각각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하파티는 영국에서 발간되는 계간지 〈달마라이프〉 최근호에 '녹지로 향한 길'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의 환경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방법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대부분의 불교신자는 이 문제를 정신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2천5백여년 동안 환경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자아 부정을 통한 자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환경문제에 직면한 불교는 온전한 자아개혁을 통해 깨쳐나아갈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존 카펜터교수는 '낙천주의의 한계를 넘어-불교의 정치적 생태학'(옥스퍼드 출판사刊)에서 정신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불교의 환경운동에 대한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환경운동을 비롯한 불교의 사회참여 경향은 동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올바른 인식이 불교의 사회 참여적 경향에서 특히 중요하다"며 이런 인식을 가꾸기 위해서는 '자아의 해체(解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존 카펜터교수는 신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은 생태계에 대한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태도에 관심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달라이 라마(티벳승왕)가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세계를 거대한 자연공원으로 가꾸자"고 제언한 이후 진행된 불교계의 다양한 노력 중의 한 성과물이다.

또 이 주장에 걸맞게 삼림남벌, 수력·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태국 불교계의 환경단체와 핵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반핵단체(NGP)를 결성한 영국 불교계 등 눈부신 활동이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승병운동 배경은 대승적 생명보호 사상"

이효걸교수 주장

조선조 승병운동을 추동시킨 불교 내부의 사상적 근거는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진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 본래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걸교수(안동대 국학부)는 지난 5~6일 '의병문화 대탐구'를 주제로 안동대학교 문화회관에서 열린 안동의병의거 1백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승병운동의 사상적 배경'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호국전통도 승병봉기 요인

이교수가 짚은 승병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우선 한국불교는 수용할 당시부터 국가 주도로 수용되어 고대국가 형성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까지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조선시대 성리학에 맞서 수세적 방어논리로 존립자체에 급급했던 불교는 존립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잠재적 욕구를 키워 갈 수 밖에 없었으며, 호국의 전통이 민간속에 근근히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점도 승병운동을 가능케 했던 주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교수는 승병운동이 '불살생'을 계율로 삼는 불교 자체의 사상적 배경이나 타당성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의구심에 해답을 제시했다. 사명대사가 적을 해충으로 보고 살생을 정당화한 것은 물론 무조건적인 행위규범인 '불살생'이 조건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불살생의 궁극적 목적이 불살생이라는 행위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보호에 있다면 오히려 현실절대론적 대승사상의 구체화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승병운동은 초국가적 보편사상으로서의 대승불교 이념의 실천적 구현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우〉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願成佛度衆生(원성불도중생)

이 종소리 듣고 번뇌를 끊으소서
지혜가 자라 보리심을 발하소서

聞鐘聲煩惱斷(문종성번뇌단)
智慧長菩提生(지혜장보리생)
離地獄出三界(이지옥출삼계)

선암사

범종각

지옥고를 여의고 삼계를 뛰쳐나와
원컨대 성불하여 중생구제 하소서

"이 종소리 듣고 번뇌 끊으소서"

해설 잘 알다시피 절에서는 하루 세번 예불을 봉행한다. 새벽과 낮 저녁에 예불을 봉행하는데 이중 새벽과 저녁 예불은 범종각에서 범종을 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범종각은 범종뿐 아니라 목어 운판 법고 등의 사물을 갖추고 있다. 선암사의 범종각 주련은 범종을 칠 때 염송하는 종송(鐘誦)이다.

범종 소리를 듣는 모든 중생의 번뇌가 끊어지고 지혜가 샘솟아 진리를 발현해 지옥고를 벗어 삼계의 고통을 여의며 마침내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염원은 종을 치는 스님의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종소리를 듣는 모든 중생의 마음이기도 하다.

〈대구 덕은불교대 교수〉

선운사 도솔암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도보궁이라 심오한 적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솔암 성지순례 및 방생법회 안내

"한 곳에서 방생도 하고, 보궁도 참배합니다"

도솔암 경내 보물 제1200호 마애석불

도솔암 경내 도솔천 내원궁

선운사 도솔암은 역사가 1,400여 년이 넘은 백제고찰로서 해동제일의 지장기도 보궁입니다.
또한 경내에는 보물 제280호 지장보살과 보물 제1200호 마애석불이 모셔져 있고 천연기념물인 동백꽃과 상사꽃으로 유명한 서해제일의 기도영험도량입니다.
도솔암 주위에는 신라 진흥왕의 기도지인 진흥굴과 용문굴의 절경이 있고 또 500m 이내에 맑은 계곡물을 막은 5만 평 규모의 거대한 저수지(도솔제)도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천애의 방생기도도량인 저수지(도솔제)에는 100여 대의 대형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도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불자님들을 위해 이번에 선운사 큰 절에서 도솔암까지 대형버스 길을 닦았고 도솔암 입구에 천여 평의 주차장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한 곳에서 방생도 하고 해동제일의 지장보살도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도솔암 오는 길

승용차편
1. 경부고속도로 이용 호남고속도로로 진입
정읍I.C에서 내려 좌회전 고창방향 흥덕 선운사까지 15km
2. 남해고속도로나 88고속도로를 이용 호남고속도로로 진입
백양사I.C에서 내려 좌회전 고창읍까지 10분
고창읍에서 선운사까지 20km

열차편
서울역~정읍역 새마을 또는 무궁화열차 이용
정읍역에서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버스편
강남 고속터미널~고창읍이나 정읍에 도착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부산, 경남, 대구, 경북방향은 광주고속터미널에서 하차 선운사행 또는 고창행 버스를 이용하여 선운사에 도착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보궁참배 및 방생법회를 오실 때 사전연락을 주시면 무료공양 및 안내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도솔천 내원궁 보물 제280호 지장보살

해동제일 지장기도보궁 선운사 도솔암

전화 : (0677) 64-2861, 63-4612 팩스 : (0677) 64-8317
문의처 부산·경남 : (051) 632-0383/대구·경북 : (053) 255-2838/서울·경기 : (02) 238-9910